■ 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

스페인, 더 멀리 저 너머로

43. 까사 바뜨요(Casa Batllo) 2

스페인,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바르셀로나의 까딸루냐 사람이었던 안토니 가우디는 '천재' 건축가라고 불린다. '천재'라면 레오나르도 다 빈치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등을 떠올리는데 가우디도 그 반열에 서 있다는 뜻이다. 가우디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볼 수 없었던 자기만의 건축 스타일을 만들어 냈다. 건축 형식도 독창적이었지만, 건축 기술도 완벽했다. 그리스 도리아, 바로크, 고딕 건축 스타일에 동양미, 그리고 종교와 신화가 혼합된 형이상학적인 요소를 더하고 그 위에 자연에서 관찰되는 유기적인 형태를 구현해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가우디의 세계'를 창조했다.

대략 이 정도가 바르셀로나에 오기 전에 이론으로 알고 사진으로 보았던 가우디 건축이었다. 솔직히 말해, 속으로는 가우디 스타일이 색채가 너무 요란하고 형태가 기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다. 심하게 말하면 서커스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무식하고 편협한 생각은 까사 바뜨요에 들어서는 순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그 첫인상을? '이게 뭐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이런 것이 가능한가?' 대략 이런 생각이 마구 오고 갔다. 혼란스런 머리와는 달리 가슴은 놀랍 정도로 평온했다. 마치 깊숙한 동굴 안, 고요한 물속, 따뜻한 엄마 품처럼 조용하고 편안했다. 모든 것이 시각적으로 부드러워 무리가 없었으며 위협적이지 않았다.

녹색으로 이루어진 집의 입구는 식물의 열매 속을 인간 스케일로 확대해 놓은 듯해서 마치 '잭과 콩나무' 또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동화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 같았다. 계단, 난간,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천정의 동글동글한 유리창까지 모든 것이 따뜻하고 정겨웠다. 까사 바뜨요는 실제로 바뜨요 가족이 살기 위해 지은 집이었다는데 날마다 이런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상상하기도 어려웠다.

5층으로 이루어진 까사 바뜨요를 대표하는 장소는 이층의 거실이다. 붉은 마루가 깔린 거실의 전면은 구불구불한 아치와 영롱한 채색 유리창으로 이루어져 안에서 밖을 내다 보아도 아름답고 밖에서도 거실을 뚜렷이 식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바뜨요가 그의 가족들과 이 집에서 살았을 당시에는 이 거실에 커다란 테이블을 놓고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다고 한다. 바깥 큰 길을 내다보기도 하

고 바깥에서 사람들이 이 거실을 보기도 하면서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유명한 집이었다고.

이층 거실의 유리창 앞은 까사 바뜨요를 방문한 사람들이 인증 사진을 찍는 곳이어서 R과 나도 거실의 채색 유리창 앞에 서서 사진을 찍어 보았다.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 나올 것만 같은 배경이었다. 색채와 조명과 형태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인물의 부족한 점을 가리고 채워주고 돋보이게 해 주었다. 아니, 그 앞에 선 인물이 그 배경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까사 바뜨요의 한 부분이 되어 버렸다.

까사 바뜨요의 건축 컨셉은 '바다'였다고 한다. 정말 집 안에 있으면 바닷속에 들어 온 느낌이었다. 집의 중앙은 무어(Moor) 식으로 바닥에서5층 천정까지 트여 있는데 꼭대기에서는 진주처럼 빛나는 유리창으로 자연광이 들어오고 벽은 푸른색 타일과 곡선을 그리는 창문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밑에서 올려다 보면 깊은 바닷속에 잠겨 있는 느낌이 났다. 가만히 위를 올려다보면 마치 푸른색 바위에 조개 같은 것들이 붙어 있고 햇살을 받아 바닷물이 일렁이는데 내가 그 속에서 헤엄치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파란 물속 같은 타일 벽을 올려다보면서 빙글빙글 도는 계단을 따라 계속 올라간다. 집안을 둘러 보면 정말 어느 구석에도 직선을 볼 수 없었다. 천정도, 벽도, 바닥도, 집안의 모든 인테리어도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면서 물결처럼 흐르고 있었다. 바뜨요 가족이 이사 들어 올 때 벽이 구불거려 피아노를 배치할 장소가 적당치 않다고 바뜨요 부인이 불평하자 가우디가 대답했다고 한다. "마담, 이제 바이올린을 배우시면 어떨까요?"

세금관리, 비즈니스의 시작입니다!

재테크 위에 稅(세금 세) 테크

26년간 LA Wilshire 한곳에서 OC Fullerton 으로 이전, 새롭게 시작합니다

- **세금보고 및 회계업무**
  개인/ 주식회사/ 비영리 법인
  각종 세금 관련 업무
- **회계 감사**
  IRS/ CDTFA/ EDD 세무감사 대행
  주식회계/ 회계감사
- **투자 및 재정계획**
  뮤추얼펀드/ IRA/ 은퇴연금 상담
  Personal Financial Planning
- **법인 설립 및 자문**
  주식회사 설립
  한국 지상사 회계감사 및 자문

*오정훈 공인회계사 사무실은 필요이상의 수임료 책정 등의 과잉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Tel: 714-770-0041 213-382-6062
Fax: 213-382-0323 *Email:* jaycpa@sbcglobal.net
251 E. Imperial Hwy., Suite 411, Fullerton, CA 92835

오정훈 공인회계사 Jung Hoon Oh, CPA
- California State Univ. Rohnert Park, CA
  BA, Accounting
- Arizona State Univ. Tempe, AZ
  MBA Business Admin. and Accounting